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음악과 수행평가에 대한 중등학생의
인식조사

201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미 나

음악과 수행평가에 대한 중등 학생의 인식 조사

김미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미 나

인 준 서

김미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이 연구는 공교육의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년별로 수행평가에 대한 인식 및 실행을 분석·조사하여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찾음으로써 음악 교육의 발전에 기초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수행평가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해 수행평가의 정의, 음악과 수행평가의 종류 및 방향과 청소년기의 음악적 발달특징에 대해 알아 본 후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성남시 소재 6개교의 중·고등학교 학생 4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자료를 통계처리 하여 결과를 분석해 개선점을 모색해 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음악과 수행평가의 영역 중 학교에서 평가 되어지는 영역별 방법은 가창에서는 독창만을 평가하며, 기악을 중학교에서는 리코더와 단소, 고등학교는 오카리나와 리코더, 하모니카와 자유악기로 평가되어졌다. 창작은 주로 조별활동이나 멜로디 만들기, 코드반주 만들기를 사용하며 감상은 곡명외우기와 느낀점 쓰기를 평가하였다.

둘째, 음악과 수행평가 실행에 대한 전반적인 학생들의 인식은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대체로 긍정적이며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낮은 인식을 나타냈다.

셋째, 수행평가 중 학생들이 선호하는 평가는 저학년(중학교 1, 2) 감상과 고학년(중학교 3, 고등학교 1)은 기악으로 나타났다. 반면 힘들어하는 영역은 저학년 가창, 고학년 창작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생들이 바라본 수행평가의 문제점은 실기평가 전 심리적인 부담감이며, 학생들이 평가에 바라는 점은 개인적인 차이를 고려한 평가라고 인식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서 학생들은 음악과목이 개인의 타고난 능력에 의해 평가점수가 달라진다고 여기는 인식이 있는데 교사는 이 점을 고려하여 결과의 평가만이 아닌 과정의 평가를 중시여겨야 할 것이다. 음악과 수행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음악적 수준에 잘 맞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년별로의 음악적 특징을 잘 파악하여 다양한 수행평가 도구 개발과 교수·학습자료를 제작하고 수업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과제 및 방법	3
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음악과 수행평가	4
2. 청소년기의 음악적 발달 특성	12
III. 연구방법	19
1. 연구대상	19
2. 연구절차	20
3. 연구 설문 내용	21
IV. 연구결과	22
1. 교사 사전 검사	22
2. 학생 분석 결과	25
3. 논의	54
V. 결론 및 제언	62
1. 결론	62
2. 제언	63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II-1> 하그레이브스의 음악 발달 단계	18
<표 III-1> 연구 대상	19
<표 III-2> 연구 절차	20
<표 III-3> 연구 설문 내용	21
<표 IV-1> 수행평가에 대한 이해 정도	25
<표 IV-2> 수행평가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	26
<표 IV-3> 수행평가 실시의 필요성	27
<표 IV-4> 수행평가가 학습의 흥미에 미치는 영향	28
<표 IV-5> 수행평가가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29
<표 IV-6> 수행평가 실시 후 수업 분위기	30
<표 IV-7> 수행평가가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30
<표 IV-8> 평가 시 준비 여건	31
<표 IV-9> 평가 시 채점 기준 공개 여부	32
<표 IV-10> 채점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학생들 인식	33
<표 IV-11>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34
<표 IV-12> 개인의 노력 반영 여부	35
<표 IV-13> 영역별 선호도	36
<표 IV-14> 영역별 비선호도	37
<표 IV-15> 수업시간 중 배우고 싶은 악기	42
<표 IV-16> 가장 평가 시 선호하는 방법	45
<표 IV-17> 독창을 선택한 이유	46
<표 IV-18> 합창을 선택한 이유	47

<표 IV-19> 창작 평가 시 좋아하는 형태	48
<표 IV-20> 선호하는 수행평가 방법	49
<표 IV-21> 학생들이 바라본 수행평가의 좋은점	50
<표 IV-22> 학생들이 바라본 수행평가의 문제점	52
<표 IV-23> 평가 시 바라는 점	5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는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정보화, 세계화, 다양화 시대이다. 정보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 스스로가 정보를 판단하고 분석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거나, 그것을 밑바탕으로 하나의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는 과정 또한 전보다 훨씬 중요해졌다. 이렇듯 현대사회에서는 자신 스스로 판단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활동이 더욱 중요해 졌다.

교육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와 평가방법 및 내용과 초점도 변하고 있다. 그 결과 과거의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그에 맞는 평가방법인 수행평가가 1990년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1990년대 이전의 수행평가는 실기평가와 같은 의미로 간주되면서 예·체능 분야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예·체능 분야뿐만 아니라 지필시험과 대비되는 실기시험을 모두 수행평가라고 단정 지었다. 실기의 비중이 높은 음악 과목은 다른 과목보다 일찍이 수행평가라는 시험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실기평가는 현 수행평가가 의도하는 취지와는 달리 다양한 사고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배양이 어려운 집단 중심의 일괄 지도나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이었고, 평가 방법은 암기식의 지필평가와 단순하고 제한된 틀만을 고집하는 실기평가뿐이었다. 이러한 기존의 실기평가는 현 음악교육의 목적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음악과 교육 목적은 다양한 악곡 및 활동을 스스로 경험하게 하며, 그러한 경험을 통해 음악적 능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풍부한 음악적 정서와 애호심을 함양하게 함으로써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생활화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며, 생각을 표현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¹⁾ 이러한 음악교육의 목적은 현 수행평가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현 수행평가의 취지인 학습자 중심의 평가를 위해서 음악 수행평가 실행에 대한 교육현장의 실태와 특히 우리나라 현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평가방법을 과연 얼마나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음악교과의 평가방법은 실기법 위주로 가창과 기악같이 학생들이 직접 해봐야 하는 영역이 많은 교과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는 개인별 및 나이별로도 음악적 차이가 나타나며, 민감한 사춘기를 지나는 시기이다. 이에 학생들이 음악 수행평가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개선점을 학년별로 살펴봄으로써 보다 심층적으로 학생들의 생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교육의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년별로 수행평가에 관한 이해정도, 음악과 수행평가의 좋은점과 문제점, 수행평가에 대한 선호도 및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봄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음악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1) 교육과학기술부, 음악과 교육과정, 제 2007-361호, p. 2

2. 연구문제 및 방법

이 연구의 연구문제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 현재 중등 공교육에서 사용되는 음악과 수행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둘째, 학년별로 학생들이 바라본 현 음악과 수행평가에 대한 영역별 선호도와 비선호도 및 그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학생들이 바라본 수행평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수행평가 정의, 음악 수행평가의 필요성, 방향, 종류와 청소년기의 음악적 발달 단계를 알아본 후, 음악과 수행평가에 대한 중·고등학생들의 인식을 알고자 설문지를 제작하여,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중·고등학교 6개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학생들의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수행평가의 인식정도의 차이점을 알고 학생들이 바라본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법을 모색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중·고등학교만을 선정하였기에 학생의 각종 배경요인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 연구는 설문지만을 조사 도구로 사용하여 학생들이 실제 생각과 일치하는 정확한 반응을 하였는가에 대한 점과 설문지 사전 검사 시 학생들이 생활화 영역을 인지하지 못해 활동 중심 영역만 연구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II. 이론적 배경

1. 음악과 수행평가

1) 수행평가의 정의

학생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 방법을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하자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행평가는 기존의 평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평가 방법으로 선택형 시험이 아닌 다른 평가 방법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의미가 확대됨에 따라 수행평가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순근, 장기범은 수행평가를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거나, 답을 작성(구성)하도록 요구하는 평가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²⁾

남명호는 수행평가를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 혹은 숙달, 새로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능력과 같은 학습 과정, 작문, 공작·미술 작품 등 학습 결과물, 그리고 운동, 연극, 연주, 토론 등과 같이 수행 자체를 모두 평가의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수행평가는 답안 작성식 문제(주관식 문제)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작품집(포트폴리오)에 이르기까지 유형이 다양하다고 정의 하고 있다.³⁾

양길석은 “수행에 근거하여 관찰과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가” 로 수행평가를 정의하고 이때 수행이라는 의미를 “학습과제 및 문제해결 상황에서 학습자가 보여주는 구성적 반응으로 관찰 가능한 학습자의 행동이

2) 백순근(2000). 수행평가의 원리. 서울: 교육과학사. p 48

3) 남명호 외(2000). 수행평가 이해와 적용. 서울: 문음사 p.26

나 학습의 산출물 및 그 기록물”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수행평가라는 용어 외에 진정한 평가, 진짜 평가, 적절한 평가, 직접적인 평가, 지적인 평가, 또는 대안적인 평가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⁴⁾

수행평가는 한 가지 형태의 평가방법만이 아닌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 전부를 평가하고자 여러 형태의 평가방법을 실시하여 평가가 갖는 참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행되었다. 개인을 중시하고 개인차를 인정하는 만큼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여기는 평가이며 그래서 학습의 산출물 및 기록물이라고 불리며 이전의 평가와는 다른 “대안평가” 또는 “참평가” 등으로 불린다.⁵⁾

2) 음악교과의 특성 및 음악과 수행평가의 필요성

음악교과는 학생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음악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음악성을 기르며 풍부한 음악적 정서를 함양하도록 체계적으로 도와줌으로서 음악을 생활화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교과이다. 그러므로 음악을 느끼게 하고 음악의 기본 감각을 기르며, 음악 경험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탐구하고 연마하도록 하는 한편,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목적을 둔다.⁶⁾

음악교과의 특성을 장기범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4) 박도순(2007). 교육평가 이해와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p. 243 재인용

5) 백순근(2000). 수행평가의 원리. 서울: 교육과학사. p. 49

6) 교육과학기술부, 음악과 교육과정, 제 2007-361호, p.2

“음악은 사람의 느낌과 생각을 소리를 통해 표현하고 향수하는 예술이자 시간 예술로서 개인적으로는 감정이나 느낌을 상징화하는 매체요, 사회적으로는 환경의 일부가 되고, 국가나 민족으로는 문화유산의 기능을 갖는다. 음악의 중요한 기능 중 한 가지는 인간 누구에게나 필요한 심미적인 경험과 즐거움을 준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음악 활동을 통하여 미적 경험과 즐거움을 얻고 잠재된 음악성과 창의성을 개발하여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가능성과 삶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다. 음악교과는 이러한 음악을 학습의 내용으로 삼는 교과이다.”⁷⁾

이러한 음악교과의 목적에 맞게 평가 또한 중요하다. 평가는 수업의 필수영역이며 학습의 과정이기에 이를 학습과정으로 인정하고 격리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음악교과는 다른 교과와는 달리 기능적, 예술적, 학문적 속성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기에 보다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해야 하므로 수행평가가 필요하다.

수행평가의 경우 실기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상호평가, 온라인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으며, 개인 또는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평가의 결과보다는 학습내용을 익히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진단할 수 있게 수시 평가와 정시 평가를 사용할 수 있어 다른 과목 보다 예술적 실기적인 면이 많은 음악과목에는 탁월한 평가이다. 또한 수행평가의 가장 큰 특징인 지적인 영역 뿐 아니라 정의적, 심동적 영역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관점에서 음악과의 특성과 부합하는 가장 바람직하고 적절한 평가 방식이다.

7) 장기범(1999). 음악과 수행평가의 이론과 예제. 열린교육연구 vol. 7 No. 1 p.351

3) 음악과 수행평가의 방향

음악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표현하는 예술이고, 인간을 감동시키고 심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졌다. 이러한 음악교과의 특성을 살리고 학교 교육의 질을 보다 향상하고 공정하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평가를 하기위해 음악과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다양한 평가 목적을 통해 음악 교수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현재 음악과의 평가는 교수 학습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 보다는 우리 교육이 처한 특수성 때문에 학생들의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수행평가의 방안은 음악과 교수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음악교육의 본질을 추구 할 수 있는 내용을 평가의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학생의 음악적 기능이나 지식은 물론 성취도와 성취 태도를 모두 평가의 대상에 포함해야 함을 시사하고 평가의 목적은 학생들의 음악과 목적 구현에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음악 교수 학습의 성취정도를 다양한 시점과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제 이어야 한다. 수행평가는 수업과 평가가 연관된 평가 시점의 이동이 필요하고 평가방법도 다양화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각 학생의 음악적 특성과 음악적 성취에 관한 지표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넷째, 교수 학습 과정에서 개개인 평가 뿐 아니라 집단을 단위로 하는 평가 체제도 모색해야 한다. 음악과의 평가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했을 때 개개인의 평가 뿐 아니라 집단의 평가도 중요하다. 이러 한 평가

방법은 교사의 업무를 경감 시킬 뿐 아니라 학생 상호간의 협동심과 지나친 개인 경쟁을 방지한다는 교육적 차원에서도 당연히 권장 되어야 한다.

다섯째, 실음을 바탕으로 한 청각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음악수업은 소리예술로, 청각이 중요한 수업인 만큼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지식만을 이해, 암기하게 하여 평가하는 형태는 맞지 않는 교과목이다. 항상 교과목의 특성에 유념하여 학생들의 개성과 소질을 평가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이루어 져야 한다.

여섯째, 인본주의적 평가관을 지향하는 평가체제이어야 한다. 교과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교과의 내용전달에 급급한 나머지 교육의 주체인 인간을 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평가의 경우, 근시적인 평가 목적에 치중하다 보면, 인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관점을 잊을 수 있다. 따라서 음악과의 수행평가는 교수 학습상황과 긴밀히 연관된 상황에서 각 학생의 인성과 음악성, 취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본주의적 평가관을 지향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⁸⁾

일곱째, 사용하기 수월하며 학습상황을 고려한 평가방법이어야 한다. 평가를 하기 전 학교와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하고 수월한 평가방법을 생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교사는 항상 학교 뿐 아니라 학생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평가 시 학생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여덟째, 평가방법과 내용이 학생의 음악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평가이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성장하고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평가방법이 단순히 암기식의 내용이라면 학생들에게는 음악적으로 도움 되는 것이 없다. 교사는 교수·학습활동을 학생의 음악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하며 평가방법 또한 그러해야 한다.⁹⁾

8) 장기범(1999). 음악과 수행평가의 이론과 예제. 열린교육연구 vol. 7 No. 1 pp.358~360 요약

9) 백순근(2000). 수행평가의 원리. 서울: 교육과학사. p. 123 요약

4) 음악과 수행평가의 종류

① 서술·논술형 검사

서술형 혹은 논술형 평가는 주관식 검사라고 하는데 이 평가방식은 학생으로 하여금 출제자가 출제한 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이나 지식을 직접 서술하는 형태의 평가방식이다. 음악과에서는 주로 생활화영역, 감상영역 평가 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로 작성 할 수 있어 전체 글을 쓰는 문단력 뿐 아니라 음악에 대한 창의력, 고등능력도 기를 수 있어 적합하다.

② 구술법

구술법은 가장 오래된 방법으로 특정 주제나 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생각을 발표하게 하고 학생의 준비도, 표현력, 판단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사전에 주제나 질문을 미리 알려주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내용만 알려주고 그 내용영역과 관련된 주제나 질문을 제시하고 답변하는 형태의 방법도 있다. 주로 음악 수업에서는 감상 수업을 하고 난 후 평가 방법으로 쓰이고 창작이나 가창 기악 같은 활동영역 시 자신의 음악 활동을 보고 친구들이 평가해 주는 동료평가 시 적용 될 수 있다.

③ 토론법

토론법이란 교수 학습 활동과 평가 활동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수행평가의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특정 주제를 놓고 모둠을 만들어 서로 토론하는 것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교사는 이러한 토론법을 통해 학생들의 성향 또한 파악할 수 있다. 주로 음악과에서는 한류열풍이나 대중문화를 수업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또한 감상 수업 시 음악사적으로 봤을 때 시대별로의 특징, 음악의 가치 등을 토의 주제로 삼을 수 있다.

④ 실기시험

기존의 실기시험과 수행평가에서 말하는 실기시험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수행평가에서 말하는 실기시험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수업 매시간 마다 교사는 학습목표를 위해 학생이 노력하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음악과에서는 주로 실기평가로 이루어지는 과목인 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평가라고 공고한 날 뿐 아니라 학생이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특히 기악영역, 가창영역 평가 시 많이 적용 된다.

⑤ 면접법

면접법은 평가자와 학생이 일대일의 대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가자는 심도 깊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사전에 예상 할 수 없었던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음악과는 음악 발표회나 행사를 위해 학생을 선발할 때 음악에 관한 지식, 이해정도, 적성 등을 평가할 때 사용되며 교사는 학생이 면접에 편안한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¹⁰⁾

⑥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보고서법

자기평가 보고서란 학생 스스로가 교수 학습활동에 대한 학습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자신을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며 교사는 이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음악과에서도 개인이 한 연주에 대해 자신이, 모듬별로 창작한 음악을 모듬별로 듣고 평가함으로써 학습 분위기 및 성취도도 높일 수 있어 활동영역에 자주 사용된다.

⑦ 실험 실습법

실험 실습법은 사회과학 분야 보다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어떤 과제에 대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실험 실습을 하게 한

10) 백순근(2000). 수행평가의 원리. 서울: 교육과학사. p.102 요약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 하도록 한다. 개인이나 모둠의 공동 작업을 통해 실시하는데 평가자는 이 때 학생들의 실험 실습 과정과 제출된 결과 보고서를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음악과에서는 원리보다는 소리나 작품을 중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실험실습법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악기소리의 탐색, 다양한 음원에 대한 실험을 통해 실험 실습법을 평가할 수 있다.

⑧ 연구 보고서법

학생의 능력이나 흥미에 따라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및 종합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제에 따라 개인 뿐 아니라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아 그룹으로 진행도 가능하다. 주로 음악과에서는 음악회 감상 연구 보고서를 많이 제출하도록 하는 평가로 사용되는데 그 음악회에 대한 사전정보인 연주자나 연주곡에 대한 선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문제해결과정을 미리 제시해 주도록 한다.

⑨ 포트폴리오법

포트폴리오란 자신의 작품을 체계적으로 모아 둔 개인 작품집을 이용한 평가 방법이다. 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고 잠재력, 성실성,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인식할 수 있으며 교사들은 학생들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쉽게 파악하고 조언할 수 있다. 이 평가 방법은 학생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수행평가의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각광 받고 있다. 음악과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발달단계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가창, 기악, 창작과 관련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사용할 수 있다.¹¹⁾

2. 청소년기 음악적 발달 특성

11) 한국교육과정 평가원(1999). 수행평가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p. 39~50

1) 청소년기 일반적 특성

청소년기는 유전에 의해 통제되는 일련의 신체발달에서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키, 몸무게, 근육, 그리고 신체비율에서의 변화가 현저한 성장급등현상이 나타나며 동시에 성적 성숙이 촉진되는 시기이다. 정신적으로는 지적능력이 최고로 성장하는 시기로서 통찰력, 논리력, 사고력, 추리력 등 추상능력과 논리적인 사고태도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또한 예술, 문화, 사상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며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확립하는 시기이다. 12)

이처럼 청소년기가 진취적이고 적극적이지만 그들의 관념이 추상적, 관념적이기에 잘못하면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될 수도 있다. 주관적인 세계속에서 자아를 찾지만 완전한 독립적인 자아를 형성하지 못하므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며 감정의 기복도 심하다.

2) 청소년기 음악적 발달 단계

청소년기는 성인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로서 거의 신체적으로는 성인과 비슷하지만 음악적으로는 자신만의 뚜렷한 음악적 성향이 생겨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의 음악적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중학생의 음악적 특징

청소년 중 특히 중학생들은 인간 성숙의 중요한 과정의 하나인 사춘기라는 특별한 시기에 들어서 있거나 아니면 곧 사춘기를 맞게 될 시점에 와 있다. 사고력이 활발하게 작용하고 감정이 더욱 세분화 되며 예민해지고 신체적으로도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시기이므로 여러 측면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12) 최경숙(2001). 발달심리학 아동, 청소년기 중심으로. 서울: 교문사. p. 248

음악 활동에 긴요한 청각각과 근 감각, 지력, 기억력, 사고력은 대체로 유아기 때부터 꾸준히 발달함으로 중학생들은 음악 활동을 하는 데 바탕이 되는 일반적인 능력을 모두 갖추었다. 학생들은 질 높은 예술 음악을 즐기고, 간단한 곡의 악보를 능숙하게 읽을 수 있고, 스스로 자신의 느낌을 실어 노래 할 수 있지만 우리 교실의 중학생들이 모두 이러한 능력과 태도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사실 중학생들은 각기 다양한 수준의 음악적 능력과 조금씩 다른 음악적 심성을 가지고 있어 교사는 이 점을 잘 유념하여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 시기의 중학생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들은 각기 보유하고 있는 음악행위 기능, 음악 경험의 범주와 흥미 경향, 음악에 대한 태도, 자신감이나 욕구 등에 있어서 저마다 각양각색이며, 그 차이가 매우 심하다. 특히 사춘기가 심한 학생과 이미 다 지나간 학생들이 있기에 수업 시 교사는 고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의 상태를 잘 파악하여 지도할 때 꼭 유념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학습 과제 중에는 초등학교 시기에 축적되었던 학습의 경험과 결과를 바탕으로 한 층 더 심화 되거나 학습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으며 감각적 경험을 주로 하던 학습 경험으로부터 지적, 논리적 사고로 바꾸어 갈 필요가 있다. 중학생들은 이제 악곡 속에서 일어나는 조성의 구조를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을 음악 이론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악보 상으로 나타난 구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소리의 결합과 화음을 구성하고 그 생성의 원리를 이해하게 하는 원리를 적용하여 새로운 음악을 창출하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셋째, 중학생들의 자아의식이 싹트고, 자신의 뚜렷한 의식이 형성 되며

그러한 자의식의 태도가 특히 음악학습과 음악적 활동에 강한 영향을 끼친다. 중학생의 자아의식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음악 학습이나 활동이 의미 있는 일인가를 판단하게 할 의식을 불러일으키며 긍정적인 태도와 음악적 성취에 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사는 잘 판단하여 지도해야 한다.¹³⁾

나. 고등학생의 음악적 특징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지 발달 단계는 피아제가 말하는 형식적 조작기의 말기와 청년초기에 해당되며 인지구조와 신체구조는 거의 성인에 이르고, 논리적 조작에 의한 사고가 이루어져 거의 모든 종류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며, 사춘기를 지나 성인에 가깝다. ¹⁴⁾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자아 인식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심한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합당한 이타심도 함께 소유하고 있어 한 가지 일에 몇 시간씩 몰두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고등학생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들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음악행위 기능, 음악 경험의 범주와 흥미경향, 음악에 대한 태도, 자신감이나 욕구가 각양각색이며 그 차이 또한 매우 심하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의 각 측면의 평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학습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내용과 방법을 조정해야 한다.

둘째, 고등학생들에게 부과되는 학습과제 중 중학교 시기까지 축적했던 학습의 결과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층 더 심화되거나 새로이 학습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으며 지적 및 논리적 사고가 더욱 요구되는 학습내용이 많다. 고등학생들은 지각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어 있어서, 중학생과는

13) 이홍수(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p. 228~250 요약

14) 박찬석(1997). 음악교육총론. 서울: 배림출판사. P. 80~81

달리 성격이 다른 여러 음 현상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부의 결합과 화음의 연결을 탐색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셋째, 고등학생들은 강한 자의식과 뚜렷한 주관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의식과 주관관이 음악학습과 음악적 활동에 강한 영향을 끼친다. 음악적인 배움은 표현 예술로서 하나의 중대한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중학생 때의 음악 수업에서는 평범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음악 행위가 이제 전혀 다른 의미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여서 잘못하면 그 어떤 음악 행위나 기교의 연습도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¹⁵⁾

그래서 고등학생 시기에는 학생들 자신이 이루는 건실한 음악적 성취나 음악에 대한 태도의 결정에 강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교사는 반드시 그들의 능력 수준에 알맞은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적절하고 다양한 학습 과정을 거치도록 안내해야 하는 것이다.

3) 학자들이 본 청소년기 음악적 발달 단계¹⁶⁾

청소년기의 음악적 특징 및 인지적 특징을 많은 학자들이 발달 단계를 나누어 연구하였다. 학자들의 청소년기 음악적 발달단계의 특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피아제의 발달단계 이론

피아제(Jean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은 심리학의 큰 맥락으로 인간이라는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적응과정으로서 몇 단

15) 이흥수(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p. 262-279 요약

16) 권덕원 외(2009).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p. 115-121 요약

계에 걸쳐 발달한다는 점을 연구한 것이다. 그의 이론은 인간의 나이별로 총 4개의 발달 단계를 나누어 일반적인 인지적 특성에 맞게 음악적 특성을 나누고 있다. 감각운동기(0-2세), 전 조작기(2-7세), 구체적 조작기(7-11세), 형식적 조작기(11세 이후)로 총 4개의 발달단계로 나누고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이 대상이므로 청소년기의 음악적 발달단계를 중점으로 보면 11세 이후 청소년기로서 형식적 조작기에 속하며, 일반적인 인지적 특징은 문제해결력, 논리력, 비판적 사고력, 추상적 사고 등 모든 것이 이제 성인에 가깝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시기이다. 음악인지적 특징으로는 강한 또래 음악문화(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친근한 음악사용, 대중가요 등)에 흥미를 가장 많이 가진다.

교사보다는 친구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노력해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하며, 교사의 일방적 전달보다는 음악적 과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 음악에 대한 비판적, 분석적 학습이 가능해져 개념을 실제 음악에 적용할 수 있다.

나. 가드너의 음악인지 발달 단계

가드너(Gardner)는 인지주의적 교육심리학자로서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과 유사한 입장이지만 인지발달 단계를 논리, 수리적 중심의 단선적 과정으로 본 피아제와는 달리 여러 종류의 각기 다른 지적 영역에서 다른 종류의 발달단계를 거쳐 인지가 발달한다고 보았다.

피아제는 7-11세까지 아동기로 보았으나 가드너는 7-13세까지 아동기로 보고 있다. 현대 청소년 사춘기의 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보편적인 연령에 한정지은 음악인지 발달단계 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독립적인 지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가드너는 음악적 지능을 독립적인 지능으로 보고 음악적인 지능의 발달

단계를 설명하였는데 청소년기의 음악인지 발달은 체계적 교육(학교 및 전문교육)을 통해 음악적 표현, 지식 및 기능이 확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으며 학교 교육 교수방법 뿐 아니라 평가 또한 중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점차 음악적 기능 습득에 대한 음악적 의도를 발견해 음악을 해야 하는 의미에 대해 타당성을 부여 할 수 있으며, 음악에 관한 비판적 의사소통 능력도 가능해 진다. 문화 관습적 음악어법에 대한 기계적 순응으로부터 창의적 작품으로 관심이 바뀌어 지면서 창작이 가능하고 음악에 관한 비판적 의사소통 능력도 성장해 자신의 음악에 대한 의견을 진솔하게 나타낼 수 있다. 악보 독보 능력이 발전하여 가창, 기악 등 음악의 활동영역에 보다 쉽고 아름다운 음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음악성을 계발 할 수 있다.

다. 하그레이브스의 음악발달 단계

하그레이브스(Hargreaves)는 음악적 능력의 발달을 5단계로 제시하였는데 특정한 지적 영역에서의 인지발달의 단계와 다른 영역에서의 인지발달 단계가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설명한 가드너와는 달리 특정 예술영역의 발달 단계를 다른 예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17)

하그레이브스는 가창, 상징, 인지, 창작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며 피아제나 가드너의 발달단계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창작적 능력을 가장 상위의 음악적 능력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17) 나재용(2010). 음악교육을 위한 음악 발달 심리학. 서울: 교학사 p. 32

<표 II-1> 하그레이브스의 음악 발달 단계¹⁸⁾

단 계	연 령	가 창	상징(악보)	인지	창 작
전 문 적 단 계	15세 이상				실현적 반성적
체 계적 단 계	8 -15	정확한 음정 음계	형식, 박절적	가락에 대 한 분석적 이해	개성적 규 칙

하그레이브스는 15세 이상의 청소년 시기는 모든 영역이 완성되는 시기라고 주장한다. 음악의 상위 영역으로 인지하는 창작영역 단계에 오르며 창작영역도 실현적, 반성적으로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청소년기의 음악적 특징을 피아제, 가드너, 하그레이브스가 주장한 이론에 맞추어 살펴보았다. 정리해보면 세 학자 모두 청소년기는 음악에 관한 기계적 순응보다는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며 음악의 최고 경지인 창작능력에 도달 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가장 최고의 경지인 창작능력에 도달 할 정도가 된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론상으로 나와 있을 뿐 학생마다의 타고난 능력과 여러 환경들의 영향으로 개인적 차이는 나타난다. 하그레이브스는 특정 예술의 발달단계를 다른 예술영역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듯 최근에는 통합교육이 대두되고 있다. 학자들의 이러한 논리들을 잘 이해하여 수업에 적용한다면 더 나은 수업방식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청소년기의 이러한 음악인지적 특성은 수행평가의 취지와 가장 잘 맞는데 이러한 음악인지적 특성에 맞추어 개인 보다는 모둠을, 주입식의 수업보다는 토론을, 자신의 음악적 성향 및 활동을 뒤돌아 볼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식의 방법 등의 수행평가 방식을 더 사용해야 할 것이다.

18) 권덕원 외(2009).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p.121

Ⅲ. 연구 방법

음악과 수행평가에 대한 남·여 및 학년별로의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음악과 수행평가에 대한 평가 목적과 특징, 수행평가의 실행 방법, 학생들이 수행평가 시행 시 활동 영역 중 선호도 및 개선점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1. 연구 대상

<표 Ⅲ-1> 연구 대상

	학 년	전체부수	회수부수
중학교	1	106	97
	2	106	93
	3	105	97
고등학교	1	108	97
합 계		425	384 (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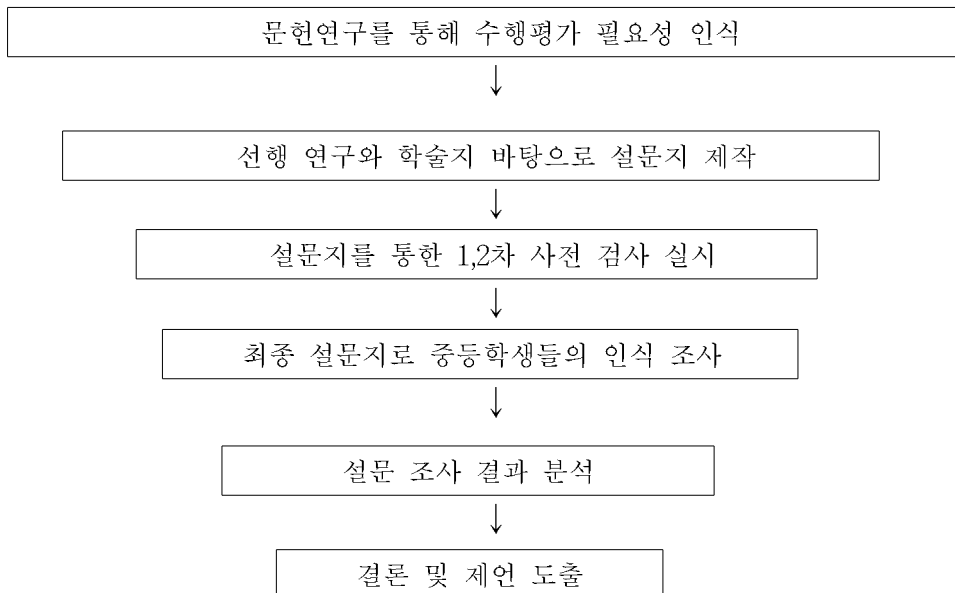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로 총 6개교 학생들에게 42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384(90.3%)부를 회수하였다. 학생들의 학교마다의 평가 환경을 알기 위해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 연구 절차

수행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와 학술지를 바탕으로 수행평가 설문지 문항 분석을 통해 2012년 9월 9일 1차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2012년 9월 13일 학생 5명과 교사 2명에게 1차 설문지의 내용을 통해 사전 검사를 실시 한 후, 문항의 표현 및 이해하기 힘든 영역에 대한 내용을 수렴하여 2차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2차 설문지의 내용을 학생 10명에게 사전 검사 한 후, 교사 2명과 함께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여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 분석은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절차를 간략히 도식하면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연구 절차



3. 연구 설문 내용

이 설문은 개별화 음악수업에 대해 학습자 인식 및 요구조사 (최은식, 신혜경, 2012) 학습자 중심 교과 교육연구. 수행평가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인식 연구 (박정민 2005). 중학교 음악교과 수행평가 학생 인식 조사 (박영란 2006). 과학 수행평가에 대한 인식도 연구 (추선미 2009)를 토대로 하여 제작하였다. 음악 수행평가에 대한 실태 연구에 18문항과 음악 수행평가의 인식 및 선호도 영역에 12문항, 학생들이 바라는 평가에 대한 개선점을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내용은 <표 III-3> 와 같다.

<표 III-3> 연구 설문 내용

영역	연구 내용	문항
수행평가 실태조사	수행평가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	1-4
	학습효과 및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5-8
	수행평가 시 운영방법 및 준비여건	9-10
	평가 시 채점과정	11-14
인식조사	영역 별 평가 선호도와 그 이유	15-20
	선호하는 수행평가 방법	21
	현 평가의 좋은점과 문제점	22-23
	평가 시 바라는 점	24

IV. 연구 결과

1. 교사 사전 검사

일반계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현 음악 수행평가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중학교 3개교와 고등학교 3개교 총 6개교의 음악교사에게 영역별 평가 방법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으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창영역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모두 독창만을 평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A중학교 1개교와 A고등학교 1개교에서는 집중이수제와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실기법으로 평가 될 수 있는 가창과 기악 중 하나만 평가하였다.

2) 기악영역

A중학교의 1, 2학년은 주로 리코더와 단소를 평가하고 있고 3학년은 리코더와 단소, 오카리나도 평가 하고 있었다.

B중학교 1, 2, 3학년은 기악영역 평가 악기를 모두 리코더와 단소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C중학교에서 1, 2, 3학년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도 역시 리코더와 단소만을 사용하며 평가방법으로 2중주도 사용하였다.

A고등학교는 기악영역 평가방법으로 리코더와 오카리나 또는 자유악기를 평가하였다. 하지만 수업 지도 시에는 하모니카도 이용하였다. B고등학교는 오로지 리코더만을 평가하고 있으며, C고등학교는 오카리나를 평가하고 있었다.

3) 창작영역

A중학교 1, 2학년은 주로 조별평가를 이용하여 창작 평가를 하며 3학년은 코드를 이용한 반주패턴을 창작하였다. B중학교는 1, 2, 3학년 전 학년이 창작을 어려워하여 자주 평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하여 다양한 음악만들기와 조별활동을 이루어 평가하였다.

C중학교 1학년은 주로 조별평가를 2, 3학년은 코드 안에서 멜로디 만들기나 반주패턴 만들기 위주로 평가를 하였다. A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이고 입시위주로 음악 수업이 많지 않아 창작영역을 어렵게 평가하지 않기 위해 조별위주로 평가하였으며, B고등학교도 학생들이 어려워 하여 조별위주의 평가가 많았다. C고등학교는 멜로디 만들기나 코드 반주패턴을 예시로 이용해 평가하는 데 학생들이 직접 음악기호를 기보하는 것도 아닌데도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 한다고 하였다.

4) 감상영역

A중학교는 1, 2학년은 좋아하는 음악을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고 친구들과 앞에서 소개하는 평가를 하고, 3학년은 곡명외우는 평가를 하였다. B중학교는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의 전체적인 면을 평가하는데 곡명, 시대적 배경과 작곡가, 느낀점과 느낌을 그림으로 까지 표현하도록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중학교도 1, 2, 3학년 전 학년이 B중학교처럼 음악을 감상하고 다양한 지식과 감성을 평가한다고 알 수 있었다.

A고등학교는 학생들이 클래식을 학교에서라도 많이 접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곡명을 외우는 평가를 하며, B고등학교는 음악을 감상함으로써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입시에 눌린 학생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 느낀점만 쓰는 것을 평가로 하였다. C고등학교도 역시 곡명외우기를 평가하였다.

교사 인터뷰를 통해 각 영역별로의 수행평가 방법을 조사한 결과 가창 영역은 오직 독창을, 기악영역은 중학교는 리코더와 단소, 오카리나를 평가하며 고등학교는 오카리나와 하모니카, 리코더와 자유악기로 평가되어 졌다. 창작영역은 중학교 에서는 주로 다양한 것을 조를 이루어 만들어 보는 조별평가가 이루어 지거나 코드 안에서 멜로디와 반주패턴을 만드는 평가를 하였다. 고등학교는 음악 수업이 적고 창작영역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주로 조별평가를 하며, 간혹 멜로디 만들거나 반주패턴을 만드는 평가를 하였다.

감상영역은 중학교에서는 감상을 통해 다양하게 평가하기 위해 곡명 외우기, 이론적인 부분 뿐 아니라 느낌을 그림까지 그리게 하는 통합교육을 시도하려는 학교도 엿보였다. 고등학교는 곡명외우기와 느낀점 쓰기 위주로 평가하였다.

2. 학생 분석 결과

1) 수행평가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가. 수행평가 실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중등학교 학생들은 현재 수행평가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표IV-1> 수행평가에 대한 이해 정도

구 분	N	Mean	SD	F	P-value
중 1	97	3.35	1.041	.509	.676
중 2	93	3.42	1.035		
중 3	97	3.49	0.926		
고 1	97	3.51	0.980		
합 계	384	3.44	0.994		

수행평가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를 질문하였는데 <표IV-1>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보통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학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중학교 1학년 3.35 중학교 2학년 3.42 중학교 3학년 3.49 고등학교 1학년 3.51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수행평가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P>.05$)를 보이지 않아 학년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수행평가에 대해 더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사는 평가 전 학생들에게 꼭 수행평가에 대해 숙지시켜야 할 것이다.

수행평가는 음악교과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는지 학생들의 인식을 알기 위해 질문하였다.

<표Ⅳ-2> 수행평가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

구 분	N	Mean	SD	F	P-value
중 1	97	2.75	1.005	6.987	.025
중 2	93	2.54	1.024		
중 3	97	2.65	1.031		
고 1	97	2.78	1.085		
합 계	384	2.66	1.028		

수행평가가 음악교과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는지를 알기위해 학생들에게 질문한 결과 중학교 1학년 2.75 중학교 2학년 2.54, 중학교 3학년 2.65, 고등학교는 2.78의 인식을 나타냈다. 고등학교 1학년이 가장 높은 인식을 나타냈고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낮은 인식을 나타냈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5$)

고등학생의 인식이 가장 높은 것은 효과적인 음악교육을 위한 수행평가 방법이 긍정적으로 미쳤다고 사료되며 비교적 음악교육 현장에서 수행평가에 대한 인식이 고학년이 높으므로 지속적인 수행평가 방식이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된다.

학생들에게 수행평가는 개인의 음악적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표 IV-3> 수행평가 실시의 필요성

구분	N	Mean	SD	F	P-value
중 1	97	2.96	1.030	6.881	.000
중 2	93	2.73	1.002		
중 3	97	2.98	1.000		
고 1	97	3.39	1.066		
합계	384	3.02	1.048		

수행평가는 나의 음악적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체적으로 보통 의견이 많았다. 학년별로 조금씩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3.39로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중학교 3학년이 2.98, 중학교 1학년이 2.96이며 중학교 2학년이 2.73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 특히 다른 학년에 비해 중학교 2학년이 2.73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P < .05$)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로 보아 고등학생이 높은 인식을 보이며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낮은 인식을 보였는데 중학교 2학년은 사춘기가 가장 왕성한 시기로서 특히 실기법에 의한 평가가 많아 이 점을 낮게 인식한 것으로 사료된다. 교사는 이 점을 유념하여 학생들의 상태를 잘 인지하고 학습자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수행평가는 음악공부에 대한 흥미를 증가시키는 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학생들에게 질문하였다.

<표 IV-4> 수행평가가 학습의 흥미에 미치는 영향

구 분	N	Mean	SD	F	P-value
중 1	97	2.96	1.030	.598	.547
중 2	93	3.15	1.014		
중 3	97	2.87	1.048		
고 1	97	2.79	1.055		
합 계	384	2.94	1.036		

수행평가가 음악공부의 흥미를 증가시키는가를 알기 위해 학생들에게 질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p>.05$)

학년별 인식은 중학교 1학년 2.96, 중학교 2학년 3.15, 중학교 3학년 2.87, 고등학교 2.79의 인식을 나타냈으며 중학교 2학년이 3.15로 가장 높은 인식을 보이며 고등학교 1학년이 2.79로 가장 낮은 인식을 보였다. 평가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었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긍정적 반응이 많았고 대체로 긍정적이었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습의 흥미도에는 부정적 반응이 나와서 의외의 결과이었다.

2) 수행평가의 학습효과 및 학교생활과의 관계

가. 수행평가가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수행평가가 학교생활의 흥미와 교우관계에 도움을 주는지의 여부를 학생들에게 질문하였다.

<표 IV-5> 수행평가가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구 분	N	Mean	SD	F	P-value
중 1	97	2.82	1.146	2.455	.049
중 2	93	2.80	1.059		
중 3	97	3.00	1.090		
고 1	97	3.16	.986		
합 계	384	2.95	1.078		

수행평가가 학교생활의 흥미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고등학교 1학년이 3.16, 중학교 3학년이 3.00, 중학교 1학년이 2.82, 중학교 2학년이 2.80의 인식을 나타냈다. 수행평가가 학교생활의 흥미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등학교 1학년이 3.16으로 학년 중에 제일 높은 인식을 나타냈으며 중학교 2학년이 2.80으로 가장 낮은 인식을 나타냈다. 학년별로 가면서 점점 수행평가가 학교생활의 흥미와 교우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어 교사는 중학교 2학년을 지도 시에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통계적으로도($P < .05$)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수행평가 실시 후에 학급의 수업 분위기는 좋아졌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학생들에게 질문 하였다.

<표 IV-6> 수행평가 실시 후 수업 분위기

구 분	N	Mean	SD	F	P-value
중 1	97	2.96	1.151	.754	.658
중 2	93	2.95	1.157		
중 3	97	3.00	1.084		
고 1	97	3.16	.984		
합 계	384	2.95	1.078		

수행평가 실시 후 수업분위기는 좋아졌는가에 대한 질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p>.05$) 하지만 학년별 인식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 비교적 수행평가로 인해 학급의 분위기는 점점 좋아진다고 해석된다.

음악과 특성상 조별활동이 많아 학생들 간의 관계도 수업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나. 수행평가가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수행평가로 인해 학생들의 노래와 악기실력이 향상되었는가, 학습효과에 대한 질문하였다.

<표 IV-7> 수행평가가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구 분	N	Mean	SD	F	P-value
중 1	97	3.07	1.166	2.596	.048
중 2	93	2.96	1.151		
중 3	97	3.19	1.193		
고 1	97	3.39	.974		
합 계	384	3.15	1.131		

수행평가로 인해 노래나 악기연주의 실력이 향상되었는가에 대한 학습 효과에 관한 질문을 한 결과 <표 IV-7>를 보면 고등학교 1학년 3.39 중학교 3학년 3.19 중학교 1학년 3.07 중학교 2학년 2.96의 인식을 나타냈다. 다른 답변과 비슷하게 고등학교 1학년이 3.39로 학년 중에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중학교 2학년이 2.96으로 가장 낮은 인식을 보였다. 통계적으로도 ($P < .05$)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실기적인 부분은 단시간에 실력이 향상이 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음악교육을 학년 중에 가장 오래 받은 고등학생이 가장 높은 인식을 보이는 것이라 사료되며 음악교육이 학생들에게 다소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3) 수행평가 시 운영방법 및 준비여건

음악과 수행평가는 교과 특성상 실기법이 많은 교과이므로 평가준비가 다른 교과보다 많이 요구되는 과목이다. 바람직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악기나 연습할 공간이 꼭 필요한데 평가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악기 및 보충교재와 연습할 공간을 잘 대여해 주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표 IV-8> 수행평가 시 준비여건

구분	N	Mean	SD	F	P-value
중 1	97	3.33	1.048	3.287	.021
중 2	93	2.85	1.073		
중 3	97	3.09	1.091		
고 1	97	3.13	1.027		
합계	384	3.10	1.069		

평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악기 및 보충교재를 잘 대여해 주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표 IV-8> 와 같이 중학교 1학년 3.33 고등학교 1학년 3.13 중학교 3학년 3.09 중학교 2학년 2.85의 인식을 나타냈다.

학년 중에서 중학교 1학년이 3.33으로 가장 높은 인식을 나타냈으며 중학교 2학년이 2.85로 가장 낮은 인식을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도 ($P < .05$)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악기 및 보충교재를 대여해야 하는 점은 교사의 권한이라 학년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학생의 성격과 학습태도 및 학교환경에 따라 교사의 지시가 조금씩 달라 질수도 있으므로 모든 학생이 같은 답을 한 것이 아닌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4) 평가 시 채점과정

가. 평가 시 사전 예고

수행평가의 채점 기준이 사전에 공개되는가에 대해 알기 위해 학생들에게 질문하였다.

<표 IV-9> 평가 시 채점 기준 공개 여부

구 분	N	Mean	SD	F	P-value
중 1	97	3.33	1.068	.558	.456
중 2	93	3.54	1.052		
중 3	97	3.57	1.059		
고 1	97	3.67	1.045		
합 계	384	3.52	1.056		

수행평가가 시행되기 전에 채점기준이 사전에 공개되는지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p>.05$) 이 결과 학년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교사는 수행평가가 시행되기 전에 채점기준을 공개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년별로 조금씩의 인식 차이가 있는 이유는 학교마다의 학습상황과 학생 개개인의 학습태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나. 평가 채점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평가 과정 시에 채점 기준이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질문하였다.

<표 IV-10> 채점 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구 분	N	Mean	SD	F	P-value
중 1	97	2.59	1.027	2.782	.096
중 2	93	2.54	1.038		
중 3	97	2.78	1.031		
고 1	97	2.98	1.015		
합 계	384	2.66	1.028		

평가 시 채점 기준이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지의 인식여부를 알기 위해 질문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p>.05$)

대체적으로 학년별로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고등학생이 2.98로 가장 높은 인식을 나타내며 중학교 2학년이 2.54로 가장 낮은 인식을 나타냈다. 이 결과로 보아 특히 중학교 2학년이 채점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평가 과정 시 의문이 생겼을 때 학생들은 선생님께 평가의 타당성에 대해 물을 수 있는 학습 환경이 되는지의 여부와 그에 대해 수궁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IV-11>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구 분	N	Mean	SD	F	P-value
중 1	97	3.34	1.126	1.652	.177
중 2	93	3.65	1.039		
중 3	97	3.34	1.172		
고 1	97	3.41	1.018		
합 계	384	3.43	1.094		

평가 과정 시 의문이 생겼을 때 학생들은 선생님께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 한 결과 <표 IV-11> 를 보면 중학교 2학년 3.65 고등학교 1학년이 3.41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3.34의 인식을 나타냈다. 대체적으로 학년별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며 평가 과정 시 의문이 생겼을 때 선생님께 평가의 타당성에 대해 질문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년 중에는 다른 질문과는 달리 중학교 2학년이 3.65로 가장 높은 인식을 나타내며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이 3.34로 낮은 인식을 나타냈다. 하지만 학년별로 큰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P>.05$)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평가의 타당성에 대해 자신있게 선생님께 질문할 수 있다는 인식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신감에

찬 학생이 많으며 사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성장하도록 교육되어 져야 한다.

나. 평가 채점 시 개인의 노력 반영

음악과 수행평가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 중 실기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과로서 노력의 반영 여부도 중요한 교과이다. 학생들이 바라보았을 때 개인의 노력과 음악 성장 과정의 여부도 반영되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표 IV-12> 개인의 노력 반영 여부

구 분	N	Mean	SD	F	P-value
중 1	97	3.71	.924	3.169	.024
중 2	93	3.51	.916		
중 3	97	3.56	1.127		
고 1	97	3.91	.990		
합 계	384	3.67	1.002		

수행평가 시 개인의 노력이 평가의 방법에 반영되는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고등학교 1학년 3.91 중학교 1학년 3.71 중학교 3학년 3.56 중학교 2학년이 3.51의 인식을 나타냈으며 그 중 고등학교 1학년이 3.91로 가장 높은 인식을 나타냈고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낮은 3.51의 인식을 나타냈다. 통계적으로도 ($P<.05$)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로 대부분의 교육현장에서는 개인의 노력과 과정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인식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5) 음악과 수행평가 영역별 선호도/비선호도 및 그 이유

가. 영역별 선호도/비선호도

학생들에게 가장 좋아하고 평가받고 싶은 영역과 어렵고 힘든 영역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IV-13> 영역별 선호도

변인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합계		X ²	P-value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구분	중1	17	18	31	32	10	10	39	40	97	100	14.588	.103
	중2	15	16	25	27	11	12	42	45	93	100		
	중3	23	24	34	35	12	12	28	29	97	100		
	고1	29	30	35	36	7	7	26	27	93	100		

학생들이 수행평가 시 선호하는 영역에 대해 질문한 결과 중학교 1학년은 40%로 중학교 2학년은 45%로 감상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중학교 3학년 부터는 기악이 35% 고등학교 1학년은 기악이 36%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5) 이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저학년 (중학교 1, 2)은 감상을 선호하다가 고학년(중학교 3, 고등학교 1)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기악을 선호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중학교 2학년을 제외하면 가창 평가를 선호하는 비율이 중학교 1학년 18%, 중학교 3학년 24%, 고등학교 1학년 3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창 평가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변성기로 인해 저학년을 지나 고학년이 되면서 선호하는 영역으로 인식이 바뀐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표 IV-14> 영역별 비선호도

변인		문항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합계		X ²	P-value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구 분	중1	47	48	10	10	26	27	14	14	97	100	22.838	.002		
	중2	47	51	15	16	23	25	8	9	93	100				
	중3	26	27	23	24	35	36	13	14	97	100				
	고1	28	29	19	20	33	34	17	18	97	100				

수행평가 시 가장 어렵고 힘든 영역을 질문한 결과 저학년(중학교 1, 2)은 가창을 50%로 정도 힘들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고학년(중학교 3, 고등학교 1)은 창작을 약 30%로 정도 힘들다고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5)

저학년(중학교 1, 2)에서 가장 많이 힘들어 하는 영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가창영역은 중학교 3학년 27%, 고등학교 1학년 29%를 기준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어 확연히 줄어든 인식을 나타냈다. 가창 평가 시 가장 많은 원인이 되고 있는 변성기가 중학교 1, 2학년을 지나면서 확연히 줄어들고 중학교 3학년때는 보통 완화되어 <표 IV-8>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교사는 이 점을 유의하여 중학교 1, 2학년 평가 시 학생들을 잘 관찰하여 학생들마다 맞는 평가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고학년(중학교 3, 고등학교 1)이 되면서 힘들어 하는 영역인 창작은 저학년(중학교 1, 2)에서도 가창 다음으로 힘들어 하는 영역으로, 고학년에서 가창의 비선호도 비중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 결과로 보아 전 학년에서 꾸준히 힘들어 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지는 데 교사는 이점을 인식하여 학생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창작을 해결하기 위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 영역별 선호도에 대한 구체적 서술

가창영역을 가장 좋아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전 학년에서 쉽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8%)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자신 있는 영역이라는 의견은 중학교 1학년 (22%)을 제외하고는 응답한 학생이 없었다. 흥미로운 결과는 음악 수행평가 영역 중 가창영역이 쉽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 있는 영역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 다음은 “노래를 즐겨서”라는 의견이 중학교 3학년 40%정도 나타났으며, “재밌어서”라는 의견은 중학교 1학년(20%)과 고등학교 1학년(19%)의 비율이 많았다. 가장 변성기가 심한 중학교 2학년 긍정적인 비율이 적었다.

중학교 2학년을 제외하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조금씩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기악영역에 대해 자신 있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자신 있는 악기가 생길 수도 있어서”(38%) 또는 “자신 있는 영역이라서”(45%)라는 의견이 많았다. 다른 영역에 비해 악기에 대해 현재 잘 알고 있거나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선호하는 이유가 “쉬워서”라고만 대답한 가창영역에 비해서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다.

인식의 변화는 중학교 1학년은 “자신 있는 악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의견이 38%로 많았고 중학교 2학년은 “재밌어서” 의견이 41%, 고등학교는 “자신 있는 영역이어서” 의견이 45%를 나타냈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교에서는 한 명도 답변하지 않은 “소리가 아름다워서”란 의견이 적지 않은 비율인 23%를 나타냈다. 악기를 경험함으로써 자신 있는 악기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호기심이 자신 있는 악기로 변해가며 음악의 소리를 느낄 줄 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기타 의견으로 기악영역이 편해서 선호한다는 의견이 중학교 3학년 14%, 고등학교 1학년은 11%이며 “노력하면 가능해서”라는 의견이 중학교 2학년 13%, 중학교 3학년 5%, 고등학교 1학년 8%로 기타 의견으로 나왔고, “참여할 수 있어서”라는 의견도 중학교 1학년 6%, 고등학교 1학년 12%로 답변하였다. 이 결과 학생들은 음악수업에 참여하고 싶어하고 악기를 통해 노력해서 점수를 얻고자 하는 학생들의 인식을 볼 수 있다.

음악 수행평가 영역별 선호도 조사에서 창작영역을 좋아한다는 의견이 가장 적었기 때문에 창작영역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도 응답 비율이 낮았다. 중학교 1학년은 다른 학년에서 한 명도 답변하지 않은 “자주 해보지 않아서 기대된다” 라는 응답이 17%였다. 중학교 2학년은 “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으므로”란 의견이 25%로 많았으며 중학교 3학년 “재밌다”는 의견이 45%, 고등학교는 “관심 가는 분야라서”의 의견이 67%로 학년별로 달랐다.

서술한 문장을 종합해 보면 창작영역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 호기심이 가고 교육을 받다보니 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어 재밌으며 점차 관심이 간다는 의식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어 선호한다는 의견을 통해 신세대답게 자신의 표현의지가 확고한 요즘 학생들의 성향을 볼 수 있다. 창작을 선호하는 학생이 많지 않지만 선호하는 학생의 이유는 단순히 쉽고 편하다는 답변이 아님이 나타난다.

교사 인터뷰 결과 멜로디 만들기, 코드를 이용한 반주패턴 만들기를 창작으로 많이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이 교수방법을 통해 자신만의 멜로디를 만들고, 반주패턴을 만드는데 자신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어 흥미로워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감상영역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대체적으로 “음악 감상이 좋아서”(51%) 라는 답변이 전 학년에 걸쳐 가장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음악

적 소양이 높아져서”라는 심미적인 답변을 중학교 2학년 (32%), 고등학교 1학년 (24%)에서 차 순위로 응답했다는 것이다. 고등학생은 음악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은 고학년이라 이해가 됐지만 대체적으로 음악 수행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중학교 2학년에게 심미적인 답변이 나와서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 영역별 비선호도에 대한 구체적 서술

가창영역이 힘든 이유는 남·여 별로 차이가 있어서 남학생에게 먼저 질문한 결과 중학교 1, 2학년의 경우 변성기를 가장 큰 이유라고 대답하였다. 중학교 3학년은 선천적으로 타고 나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33.3%로 많았고, 고등학생은 “노래 부르기 싫어서”라는 답변이 3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잘 한다”고 생각하는 답변이 25%이었다.

여학생들이 가창영역을 힘들어하는 이유로 “부끄러워서”라는 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특히 중1(28%) ▶ 중2(30%) ▶ 중3(35%) ▶ 고1(56%)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노래를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해서라기보다 남들 앞에서 부르는 것이 창피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답변은 “노래를 못해서”인데 창피해서 힘들어 하는 이유 다음으로 전 학년에 걸쳐 많이 답을 하였다. 남·여 모두 노래를 못하고 선천적인 재능이 있어야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보아 가창영역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잘 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가창영역 다음으로 힘들어 하는 영역인 창작영역은 학년과 무관하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가 힘들다”거나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과 “음악기호를 쓸 줄 모른다”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창작은 특히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더욱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음악 이론이 어려워

서”라는 대답을 통해 이는 중학교 저학년 때 기초를 쌓지 않은 결과라고 보인다.

교사 인터뷰 당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창작영역의 시험지를 통해 본 결과 중·고등학교의 창작영역 부분의 시험 문제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오히려 고등학교 내용보다 중학교 내용에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학년별로 체계적인 창작 교육의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악영역이 힘든 이유는 “악기 다루기가 어렵고, 연주하기가 떨어져 실력 발휘를 할 수 없어서”(40%) 라고 가장 많이 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악기 다루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답변이 대다수이지만 중학교 3학년에서 “많은 연습이 필요해서 힘들다”(26%) 는 답변과 고등학생은 “많은 연습이 필요해서 힘들며 악보 보기도 힘들다”(21%) 라는 답변도 나왔다. 그 외 소수의견으로 악기 연주 자체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 결과로 보아 학생들이 기악영역을 힘들어 하는 이유는 가창영역의 이유 에서 처럼 선천적인 이유에서가 아닌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한 만큼의 실력발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힘들어 한다고 볼 수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인 만큼 공부와 사교육에 시간을 쫓기는 학생들의 안타까운 면을 나타낸 부분이었다.

감상 영역이 힘든 이유에 대한 답변은 “느낀 점을 쓰기가 힘들어서”라는 답변이 전 학년에 걸쳐 3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곡 이름을 외우기 힘들어서”(15%) 라는 의견이었다. 소수의견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감상영역은 음악을 느끼는 것인데 음악 감상 자체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왔다. 감상영역을 선호하는 이유와는 상반된 결과로 “느낀 점을 쓰기가 힘들다” 라는 답변이 많은 것으로 보아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담아 표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

6) 기악영역 수업 시 배우고 싶은 악기

현재 중학교 음악수행평가는 리코더와 단소를 주로 평가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오카리나와 하모니카 또는 자유악기로 평가하지만 대부분이 리코더를 많이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조사결과 대부분 평가하는 악기 및 수업시간에 배우는 악기가 중·고등학교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학습자 중심에서 기악 수업시간에 배우고 싶은 악기가 무엇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표 IV-15> 수업시간 중 배우고 싶은 악기

문항 변인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건반악기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구 분	중1	20	22	27	28	14	14	34	36	97	100
	중2	27	29	24	25	20	21	24	25	93	100
	중3	35	36	26	28	9	9	28	29	97	100
	고1	30	32	25	27	15	15	24	25	97	100

기악 영역 시간에 배우고 싶은 악기를 학생들에게 질문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악기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고 다양한 악기를 제시하였다. 이를 악기군 별로 나누었을 때 중학교 1학년을 제외하면 현악기에 가장 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중학교 3학년이 36%로 가장 많이 선호 했으며 고등학교 1학년이 32%로 두 번째로 선호하며, 중학교 2학년 29%, 중학교 1학년 22% 선호하였다.

현악기 다음으로는 건반악기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 현악기와는 달

리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가장 적게 선호한 악기는 타악기로 중학교 3학년 4%로 가장 낮고 고등학교 1학년이 13%로 타악기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가. 구체적으로 선호 악기 서술

학생들에게 어떠한 악기를 평가 받고 싶고 배우고 싶은지 남·여 별로 차이점을 보여 남·여로 나누어 질문해 보았다.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기타, 피아노, 드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실용음악과 오디션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으면서 학생들은 주로 밴드에서 사용되는 기타와 드럼, 건반악기에 관심이 가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악기 중에는 기타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학생(31%)보다는 남학생(66%)이 기타를 선호하는 비중이 높으며, 특히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은 모두 현악기중 기타를 선호했다.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도 기타를 선호하지만 하프, 비올라, 더블베이스도 선호하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가장 다양한 종류의 악기를 선호하였다. 남·여 모두 비교적 악기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지만 어떠한 악기를 배우든지 관심이 없다는 대답은 남학생(11%), 여학생(6%)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학생이 악기에 관심이 많다고 판단된다.

수업 시간에 배우고 싶은 관악기로 리코더를 꼽은 학생이 가장 많았다. 특히 남학생들에게서 그 비율이 높으며 중학교 2학년 남·여 모두 높다. 다음으로는 성별로 선호하는 악기가 나뉘는데 여학생의 경우 리코더(49%) 다음으로 플루트(38%)를 꼽은 학생이 많았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은 플루트에 답변을 한 학생이 한명도 없어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은 한 명도 선택하지 않은 악기인 색소폰을 선호한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중학교 1학년은 전혀 응답한 학생이 없다가

중학교 2학년(11%)부터 응답하였으며 특히 중학교 3학년(23%)이 색소폰을 선호한다는 답변을 가장 많이 하였다. 이들 악기 외에도 클라리넷, 하모니카, 오카리나 등을 배우고 싶다고 응답하여 배우고 싶은 악기군 중 관악기가 가장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이 결과로 보아 여학생은 플루트, 남학생은 색소폰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타악기는 드럼과 장구를 배우고 싶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여학생(54%)보다 남학생(67%)이 드럼을 배우고 싶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여학생도 그 수가 적지는 않았다. 특히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 저학년(중학교 1학년)에서는 드럼(14%)보다는 다루기 쉬운 악기인 장구(86%)를 선호하였다. 특히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모두 배우고 싶은 타악기로 드럼을 선택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드럼(63%)을 더 선호하였고, 여학생은 드럼(50%)과 장구(50%)의 비율이 같았다.

7) 가창영역 수업 시 선호하는 평가 방법

수행평가 영역 중에 가창영역을 힘들어 하는 학생이 많았는데 학생들에게 가창영역 중 선호하는 평가 방법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IV-16> 가창영역 평가 시 선호하는 방법

문항 변인		독창		합창		중창		돌림노래		모듬별 평가		합계		X ²	P-value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구 분	중1	14	14	38	39	8	8	5	5	32	33	97	100	31.969	.001
	중2	25	27	44	47	8	9	1	1	15	16	93	100		
	중3	29	30	40	41	4	4	9	9	15	16	97	100		
	고1	38	39	39	40	8	8	5	6	7	8	97	100		

<표 IV-16>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창영역 평가 시 선호하는 방법 대다수의 학년에서 합창으로 답변하였다. 특히 중학교 2학년(47%)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다른 학년에서도 비슷하게 합창을 선호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5)

가창영역에 대해 비선호하는 중학교 2학년은 특히 혼자서 노래 부르고 평가 받는 독창을 더 힘들어 해서 합창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돌림노래를 평가 방법으로 선호하는 학생은 전 학년에서 가장 적으며 특히 중학교 2학년이 가장 적다.

독창을 선호한다는 비율이 중학교 1학년(14%), 중학교 2학년(27%), 중학교 3학년(30%), 고등학교 1학년(39%)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 점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할 수 있는 독창을 인정하고 음악교육을 받는 횟수가 높아질수록 독창의 묘미를 느낀다고 해석된다.

가. 가창 평가 시 선호하는 방법에 따른 이유

독창을 선호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IV-17> 독창을 선택한 이유

문항 변인		익숙해서		혼자가 편해서		평가가 공정해서		청중들이 집중해서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구 분	중 1	3	25	4	33	4	33	1	8	12	100
	중 2	6	26	10	44	7	31	0	0	23	100
	중 3	12	44	8	29	6	23	1	4	27	100
	고 1	9	24	17	46	10	27	1	3	37	100

가창평가 방법으로 독창을 선택한 이유로 <표 IV-17> 을 보면 “혼자가 편해서”라는 응답이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데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이 46%, 중학교 2학년 44%, 중학교 1학년이 33%, 중학교 3학년이 29%로 고등학교 1학년이 가장 많은 답변을 하였다. 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모든 학생들이 같이 부담 없이 하는 조별 수업보다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 나온 결과라 사료된다. 두 번째로 많은 의견은 의외로 평가가 공정해서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 의견은 특히 저학년(중학교 1, 2)학년에서 많은 답변을 하였으며 오히려 고학년보다 더 이런 응답이 많이 나와 의외의 결과였다.

“청중이 집중해서”라는 답변이 전 학년에서 가장 적게 나왔으며 중학교 2학년은 한명도 답변하지 않았다. 이 점으로 보아 중학교 2학년이 사춘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학년으로서 부끄러움도 많이 타 다른 사람 앞에서 평가받는 것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합창을 선호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IV-18> 합창을 선택한 이유

변인 문항		같이 하는 것이 더 쉬워서		덜 부끄러워서		친구들 간에 친밀감이 생겨서		내 소리가 묻혀 갈 수 있어서		화음이 듣기 좋아서		재미있어서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구분	중 1	14	37	16	42	4	11	2	5	2	5	1	1	38	100
	중 2	14	32	16	36	3	7	4	9	6	14	1	1	44	100
	중 3	11	28	12	30	2	5	6	15	7	18	0	0	40	100
	고 1	6	15	14	36	3	8	6	15	8	21	1	3	39	100

<표 IV-18> 에 의하면 전 학년의 대체적인 답변은 “덜 부끄러워서”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학년별로 보면 중학교 1학년 42%, 중학교 2학년 36%, 중학교 3학년 30%, 고등학교 1학년 36%이며 특히 중학교 1학년에서 가장 많이 답변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고르게 답변하였다. “쉬워서”라는 답변은 중학교 1학년 37%, 중학교 2학년 32%, 중학교 3학년 28%, 고등학교 1학년 15%로 학년이 갈수록 답변이 줄어들고 있으며, “화음의 듣기 좋아서”라는 심미적인 답변은 중학교 1학년 5% 중학교 2학년 14%, 중학교 3학년 18%, 고등학교 1학년 21%로 늘어나고 있다. 이 결과 음악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음으로서 쉬워서라는 단순한 생각보다는 화음이 듣기 좋고 음악적으로 이제 무언가를 깨우쳐 가며, 얻어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어려워하는 창작영역 중 평가 시 좋아하는 형태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IV-19> 창작 평가 시 좋아하는 형태

문항 변인		멜로디 만들기		리듬만 들기		즉흥연 주하기		가사만 들기		코드반 주만들 기		합계		X ²	P-val ue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구 분	중1	28	29	23	24	8	8	33	34	5	5	97	100	14.649	.261
	중2	23	25	13	14	11	12	34	37	11	12	92	100		
	중3	21	22	15	15	10	10	44	45	7	7	97	100		
	고1	32	33	22	23	8	8	31	32	4	4	97	100		

<표 IV-19>를 보면 창작영역 평가 시 “가사 만들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 중학교 1학년 34%, 중학교 2학년 37%, 중학교 3학년 45%, 고등학교 1학년 32%로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 3학년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5)

다음으로는 “멜로디 만들기”를 선호하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경우에는 “가사 만들기”보다 선호한다고 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많이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로 분석된다.

8) 선호하는 수행평가 방법

<표 IV-20> 선호하는 수행평가 방법

	중 1		중 2		중 3		고 1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서술 및 논술법	10	10	12	14	11	12	17	18
토론법	23	24	19	21	27	28	19	19
실기법	33	34	16	17	28	29	19	19
실험·실습법	2	2	12	13	14	15	11	11
자기평가보고서법	1	1	5	6	2	2	6	6
연구보고서법	5	5	5	5	3	3	3	3
포트폴리오법	14	15	10	11	2	2	4	4
합계	97	100	93	100	97	100	97	100
χ^2	25.657							
P-value	.002							

<표 IV-20>를 보면 전 학년에서 실기법은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 1학년이 34%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중학교 2학년이 17%로 가장 저조했다. 이는 중학교 2학년이 실기영역인 가창과 기악영역을 비 선호하는 이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평가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사료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두 번째로는 조별로 토론하고 수업하는 토론법을 선호하며 중학교 1학년은 24% 중학교 2학년은 21%, 중학교 3학년은 28%, 고등학교 1학년 19%로 중학교 3학년이 많이 선호하였다. 대체적으로는 한 학년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이 결과 전 학년에서 대체적으로 고르게 토론법을 선호한다고 파악된다.

가장 저조한 답변은 자기평가보고서법으로 감상영역 평가를 비 선호하는 이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대부분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작성하는 보고서형태의 수업을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는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사회이다. 학생들은 이 부분이 부족하고 음악과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는 방법이지만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신있게 드러내고 글로서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사료된다.

9)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행평가의 좋은점과 문제점

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행평가의 좋은점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알고 그 점을 기억하여 수행평가를 더욱 좋은 방향으로 발전 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수행평가를 함으로서 좋은점을 질문하였다.

<표 IV-21> 학생들이 바라본 수행평가의 좋은점

구 분	다양한 분야 경험		가창, 기악 실력 향상		새로운 음악 창작		음악 기본교양 함양		고득점 용이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중1	32	33	8	9	23	24	19	19	15	15	97	100
중2	34	36	17	18	8	9	21	23	13	14	93	100
중3	38	40	11	11	10	11	18	19	20	21	97	100
교1	32	33	27	28	8	8	24	25	6	6	97	100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행평가의 좋은점에 대해 학생들에게 질문한 결과 “다양한 분야의 음악을 경험할 수 있어서”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양한 분야의 음악을 경험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은 특히 중학교 3학년이 40%로 가장 높으며 중학교 1학년은 33%, 중학교 2학년은 36%, 고등학교는 33%로 대체로 30%를 넘고 고르게 답변하고 있다. 이 결과로 보아 학생들의 대부분은 음악과목을 통해 음악의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좋은 점으로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가창 기악등의 음악실력이 향상되서” 라는 답변은 중학생에 비해서 고등학생이 28%로 가장 많았다. 음악교육을 꾸준히 받은 고등학생은 예전부터 축척되어 있던 음악적 경험이 쌓여서 실기영역 쪽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라 학생들이 인식한다고 해석된다.

“음악의 기본교양이 함양되어 있으므로” 라는 답변은 중학교 1학년 19%, 중학교 2학년 23%, 중학교 3학년 19%, 고등학교 1학년은 25%로 비교적 전 학년에서 꾸준한 지지를 얻고 있어 음악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기본적인 교양을 쌓을 수 있다고 인식한다.

흥미로운 점은 중학생의 경우 적지 않은 인원인 15 ~ 20%가량이 수행평가의 장점으로 “점수를 받기 쉬워서”라고 응답하였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약 6%만이 “점수를 받기 쉬워서”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고등학생들은 음악 수행평가를 쉽지 않은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행평가의 문제점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행평가를 학생들의 시각에서 본 문제점을 알기 위해 질문하였다.

<표 IV-22> 학생들이 바라본 수행평가의 문제점

구 분	실기평가 시심리적 부담감		항상 평가에 신경써야 함		선생님의 선입견과 감정에의 한 평가		각종 참고 자료의 부족		기타의견		합계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중1	44	45	25	26	18	19	4	4	6	6	97	100
중2	62	67	18	19	6	6	3	3	4	4	93	100
중3	56	58	24	25	6	6	5	5	6	6	97	100
고1	60	62	18	19	4	4	6	6	9	9	97	100

학생들이 바라본 현재 음악 수행평가의 문제점은 노래나 악기연주에 대한 부담감이 전 학년에 걸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학교 1학년이 45%, 중학교 2학년 67%, 중학교 3학년 58%, 고등학교 1학년 62%로 특히 중학교 2학년이 높은 인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중학교 2학년에 <표 IV-22>처럼 노래나 악기 연주에 대한 부담감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가창과 기악 평가를 비 선호하는 영향에서 나타난 것이라 사료되며 교사는 이 부분을 유념하여 지도해야 한다. 가장 낮은 인식을 나타낸 것은 각종 참고자료 부족이며 이 결과로 보아 평가나 교수·학습 방법 시 비교적 준비도는 잘되어 있는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밖의 기타 의견으로 “학생들의 생각을 존중한 평가”, “리코더 이외 다양한 악기 교육 및 평가”, “평가 시간의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어 실력 발휘하기 힘들” 등이 제시되었다. “평가 일시 공고 후 충분한 준비시간의 부족”, “선천적인 재능에 의한 평가”등의 의견이 나왔다.

10)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음악과 수행평가의 개선점

가. 수행평가 시 바라는 점

공정하고 바람직한 수행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학습자와 교수자가 서로 조율이 되어 바람직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시 바라는 점 또는 개선점을 질문하였다.

<표 IV-23> 평가 시 바라는 점

구 분	개인적 차이 고려		다양한 악기 교육 및 평가		수행평가 전 연습시간 필요		채점기준에 대한 명확성		기타의견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중1	46	47	17	18	10	10	10	10	14	14	97	100
중2	39	42	21	23	10	11	9	10	14	15	93	100
중3	35	36	23	24	23	24	8	8	8	8	97	100
고 1	27	28	30	31	20	21	2	2	18	19	97	100

음악 수행평가 시 바라는 점에 대해 학생들에게 질문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 모두 “재능이 아닌 개인적 차이를 고려해야한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특히 중학교 1학년이 47%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학년 42%, 중학교 3학년 36%, 고등학교 28%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점 작아졌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다양한 악기를 가르쳐주고 평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31%로 가장 많아 학생들이 다양한 악기를 배우길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 인터뷰 결과 중학교에서는 리코더와 단소를 주로 사용하여 학생들이 다소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답을 많이 하였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어 보다 다양한 악기를 교육 및 평가를 원한다는 대답이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제일 낮은 답변은 채점 기준에 대한 명확성인데 전 학년에 걸쳐 개선할 점으로도 적고 특히 고등학생이 제일 낮은 것으로 보아 현 수행평가는 평가기준이 명확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파악된다.

그 밖에 다양한 기타 의견으로 “성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채점 기준을 정확히 명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음악이론에서 모르는 부분을 자세히 가르쳐 달라”는 의견이 전 학년에 걸쳐 제시되었다. 중학교 1, 2학생들은 대부분 “재밌는 수업을 원한다”라는 답을 많이 한 반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새로운 영역도 하자”와 “음악 수업일수가 짧으니 늘려야 한다”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실기 평가 시 부담스러우니 선생님과 일대일로 평가하자”라는 의견이 전 학년에 걸쳐 가장 많았으며, “좀 더 자세히 가르쳐 달라”는 의견도 많았다. 중학교 1, 2 학생들의 경우 “자신 있는 영역을 선택해서 시험보자”라는 의견이 많았고, 학년이 높아지면서 “평가 준비 기간이 너무 짧으니 공고 후에 바로 시험을 보지 말고 기간을 여유롭게” 라는 답변이 많이 제시되었다.

3. 논의

1) 현 수행평가의 실태

가. 수행평가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음악과 수행평가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했을 때 대다수의 학생들은 보통의 의견이 많았다. 그 중에 고등학교 1학년이 3.51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2학년이 3.35로 비교적 낮은 인식을

보였다.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평균적으로 학년별로 구별되는 차이가 보여서 중학교 2학년의 평가를 지도 할 때는 교사는 수행평가의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수행평가가 학생들의 음악적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 3.39로 가장 높은 인식을 나타냈으며 중학교 2학년은 2.73으로 가장 낮은 인식을 나타냈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고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장시간의 음악 수행평가를 경험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며 학생들이 더욱 수행평가를 통해 음악적인 능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교사가 지도 해야 한다. 중학교 2학년이 역시 낮은 인식을 나타냈는데 특히 실기법에 의한 평가가 많은 교과인만큼 교사는 이 점을 잘 유념하여 지도해야 할 것이다.

나. 수행평가가 학습효과 및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수행평가가 학습효과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평가는 학교생활의 흥미와 교우관계에 도움을 주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답을 얻은 결과 고등학교 1학년이 3.16으로 가장 높은 인식을, 중학교 2학년은 2.80으로 가장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활동 위주의 수업이 많은 음악교과는 조별활동을 많이 하는데 교사는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중학교 2학년을 특히 잘 유념해야 한다. 특히 조별활동 시 학생들간의 상호평가를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행평가가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기 위해 수행평가로 인해 노래와 악기실력이 향상되었는가에 대해 질문 한 결과 고등학교 1학년 3.39로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중학교 2학년이 2.96으로 가장 낮은 인

식을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 수행평가 시 운영방법 및 준비여건

수행평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악기나 보충교재를 잘 빌려주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중학교 1학년이 3.33으로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중학교 2학년이 2.85로 가장 낮은 인식을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물론 학생들의 성격과 학습태도 및 학교상황에 따라 학생이 원해도 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집안환경이 어렵거나 여러 사정에 의해 평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빌려주어 학생들이 보다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라. 평가 시 채점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수행평가 과정 시 의문이 생겼을 때 선생님께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중학교 2학년이 3.65로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중학교 1, 3학년이 3.34로 두 학년이 동일하게 낮은 인식을 보였다. 학년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아 대부분 전 학년에서는 의문이 생겼을 때 선생님께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학습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수행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

가. 영역별 평가 선호도/비선호도 및 그 이유

① 영역별 선호도와 그 이유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다 세세히 알기 위해서 영역별 평가 선

호도/비선호도 및 그 이유를 학생들에게 질문하였다. 그 중 가장 재미있고 평가받고 싶은 영역을 질문한 결과 중학교 1, 2학년은 감상은 선호하며 고학년인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기악을 선호했다. 또한 중학교 2학년을 제외하면 가장 평가를 선호하는 비율이 중학교 1학년 18%, 중학교 3학년 24%, 고등학교 1학년 3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결과로 보아 가장 변성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평가 및 지도 시 교사는 꼭 유념하여 해야 할 것이다.

가창영역을 선호한 이유를 살펴보면 “쉬워서”라는 의견은 많은데 “자신 있는 영역이라서”라는 답이 적은 것으로 보아 쉽다고 자신 있는 영역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 가창영역과 달리 기악영역을 선호하는 답변은 “자신 있는 영역이 생길 수도 있어서”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 있는 영역이어서”와 심미적인 답변인 “소리가 아름다워서”라는 답변을 많이 하였다. 이로 보아 악기를 경험하면서 자신 있는 악기가 생길 지도 모른다는 호기심이 자신 있는 악기로 변해가며 음악의 소리를 느낄 줄 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창작영역은 “재미있어서”와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내 생각을 반영할 수 있어서”와 “관심 가는 분야이어서”라는 답변을 많이 하였다. 이를 통해 창작영역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 호기심이 가고 교육을 받다보니 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어 재밌으며 점차 관심이 간다는 의식의 변화를 나타냈다. 자신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통해 신세대답게 자신의 표현의지가 확고한 요즘 학생들의 경향을 볼 수 있다. 창작을 선호하는 학생이 많지 않지만 선호하는 학생의 이유는 단순히 쉽고 편하다는 답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감상영역은 “쉬워서”라는 답은 저학년 때 많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음악적 소양이 높아져서”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② 영역별 비선호도와 그 이유

학생들이 평가 시 어렵고 힘든 영역은 중학교 1, 2학년은 가창영역이 우세하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창작영역이 힘들다고 답을 하였다. 가창영역이 힘든 이유로 변성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노래 부르기가 싫고 재능이 없어서”가 많았다.

두 번째로 노래를 못하고 선천적인 재능이 있어야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보아 가창영역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잘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는 이 점을 주의해 결과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과정을 평가하여 학생들이 보다 평가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힘들다는 비중이 늘어나는 창작영역의 이유는 “전혀 모르겠다” “음악의 기본 및 음악기호를 쓸 줄 모른다” 등의 의견이 많은데 창작의 기초가 저학년 때부터 다져지지 않은 결과라고 해석된다. 음악은 심미적인 교과이어서 음악의 기본이론에 신경쓰지 않은 교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음악의 기본인 음악기호는 당연히 쓸 줄 알아야 한다고 여겨지기에 교사는 기초부터 차분히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기악영역이 힘든 이유로 “악기 다루기가 힘이 들어서”를 가장 많이 답했으며, 고학년(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으로 갈수록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악보 보기가 힘들다고 답을 하였으며 전공자만이 잘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수행평가에서 평가의 기준을 수업 시간에 충분히 다룬 내용으로 정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감상영역이 힘든 이유로는 “느낀 점 쓰기가 어렵다”에 가장 많은 답을 하였고, 두 번째는 “곡명 외우기 힘들다”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생소한 클래식 곡명을 외우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의 클래식 곡명을 외움으로서

음악적인 기본소양이 한층 더 발전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 하더라도 교사는 학생들이 클래식의 기본 소양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비선호하는 이유는 중요하므로 이 점을 교사는 유념하여 평가 해야 한다. 음악의 기초도 전혀 모르는 창작영역에 대해 교사는 음악의 기초를 차근차근 지도하고 평가의 연계가 이루어 져야 하며, 타고난 재능이 평가의 점수를 좌우한다는 실기법은 과정의 평가 방법과 독창과 독주만이 아닌 중창과 중주도 평가 방법에 인용한다면 부끄럽고 힘들어 하는 비선호 이유도 조금은 해결 할 듯 하다.

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악기

학생들에게 어떠한 악기를 배우고 싶은지 질문한 결과 학생들은 기타, 피아노, 드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기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관악기보다는 현악기에 더 관심이 많았다.

다. 영역별 평가 방법 중 좋아하는 형태

가창영역 평가 시 교사 인터뷰 결과 모든 학교에서 독창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학생들 대부분은 합창을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독창을 원하는 대답 또한 늘어나고 있었다. 이는 독창을 싫어하는 원인인 변성기가 해결되고 평가 방식에 익숙해져서 나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창작영역 평가방법은 주로 코드에 맞추어 반주 만들기, 멜로디 만들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전 학년 모두 가사 만들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작영역 중에 가사창작은 학생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고, 음악이론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서 선

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중등 학생이 받아야 할 교육의 질적인 면이 있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가사창작만으로는 음악교육의 발전이 없다. 학생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만 음악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사는 음악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야 한다.

라. 선호하는 수행평가 방법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수행평가의 9가지 방법 중 실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실험실습법과 연구보고서법, 포트폴리오법은 자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주로 선호하는 수행평가의 방법은 실기법이 많으며, 그 밖에 반 학생들과 토론하는 토론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적인 수행평가 방식을 피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하여 다양한 수행평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면모를 평가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 현 수행평가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재 평가의 좋은점과 문제점에 대해 학생들에게 질문한 결과 좋은점은 “음악의 여러 분야를 경험할 수 있어서”로 대답하였고 다음으로 “나의 음악적 기본 교양이 성숙되어서”가 많았다. 비록 수업시수가 적어 깊게 수업을 하지 못 하더라도 다양한 영역을 수업시간에 다루어 이 점에 만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평가의 문제점으로는 “노래나 악기 연주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에 대한 대답이 높았는데 특히 사춘기가 심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높았다. 이는 변성기와 부끄러움이 가장 심할 때여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인다. 교사는 이러한 학생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수·학습활동과 평가를 해야 한다.

학생들이 바라본 음악과 수행평가에서 바라는 점은 “타고난 재능이 아닌 개인적 차이 고려”라는 대답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악기도 다룰 수 있게 지도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많았다. 이를 통해 음악은 노력보다는 재능이 뛰어나야 한다는 학생들의 인식을 알 수 있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악기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력보다는 재능이 평가의 점수를 나타낸다는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 교사는 결과만이 아닌 과정의 평가를 중시 여겨야 한다. 리코더와 단소만의 단편적인 평가와 지도 외에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는 악기인 기타도 가능하다고 여겨지니 평가에도 활용하면 좋을 듯 싶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수행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학년별 인식을 설문지법에 의해 조사,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봄으로써 중등학교 음악과 수행평가의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중등 공교육에서 사용되는 음악과 수행평가는 가창은 오직 독창을, 창작은 코드를 이용한 반주패턴과 멜로디 만들기, 리듬창작을 통한 조별평가를 하며, 기악은 중학교는 리코더와 단소 고등학교는 오카리나와 하모니카와 자유악기로 평가되고 있다. 감상은 곡명외우기와 느낀점 쓰기를 평가하고 있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음악과 수행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대체적으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2학년은 전반적으로 수행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셋째, 평가 시 선호하는 영역은 저학년(중학교 1, 2)은 감상이며 학년이 높아져 고학년(중학교3, 고등학교 1)이 되면서 기악을 선호한다. 감상 평가를 선호하는 이유는 음악감상이 좋고 음악적 소양이 높아진다는 심미적인 답변을 했으며 기악 평가를 선호하는 이유는 자신있는 악기가 생길 수 있다는 점과 자신있는 영역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넷째, 평가 시 힘들어 하는 영역은 저학년(중학교 1, 2)은 가창이며 고학년(중학교 3, 고등학교 1)은 창작영역을 힘들어 했다. 가창을 힘들어 하는 이유는 부끄러움과 변성기의 영향이 크며, 창작을 힘들어 하는 이유는 음악의 기본과 악보도 읽을 줄 모른다는 답변이 많아 음악의 기초가 부족

하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섯째, 학생들이 바라본 음악 수행평가의 문제점은 실기평가 시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이 평가 시 바라는 점은 개인적 차이를 고려한 평가라고 인식하였다. 학생들의 이 점을 유념하여 결과의 평가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과정의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언

첫째, 학교 교육의 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학교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수행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에 따른 수행평가 방법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교육부.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권덕원 외(2009).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나재용(2010). “음악교육을 위한 음악발달심리학”. 서울: 교학사
- 남명호 외(2000). “수행평가 이해와 적용”. 서울: 문음사.
- 백순근(2000). “수행평가의 원리”. 서울: 교육과학사.
- 박도순(2007). 교육평가 이해와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2). “수행평가의 이론과 실제”. 서울: 원미사
- 석문주 외 8명 공저(1997). “학습을 위한 수행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 이흥수(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송진범(2000). “음악교육학”. 서울: 학문사.
- 박찬석(1997). “음악교육총론”. 서울: 배림출판사.
- 현경실 외 8인(2010).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 최경숙(2001). “발달심리학 아동, 청소년기 중심으로”. 서울: 교문사.

2. 학위논문

- 신미화(2009). “중학교 음악교과 수행평가 연구 3학년 가창영역 중심으로”. 강원: 관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정민(2005). “수행평가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인식연구”. 서울: 이화

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영란(2006). “중학교 음악교과 수행평가 학생 인식 조사”. 대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추선미(2009). “과학 수행평가에 대한 인식도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최미영(2007). “중학교 음악교과 수행평가 방안 연구 9학년 가창영역 중심으로”. 서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임유라(2004). “중등학교 음악교사들의 수행평가에 대한 인식 연구”. 서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3. 학술지

장기범(1999). “음악과 수행평가의 이론과 실제”. 열린교육연구 제7집 제1호. 1999.

최은식, 신혜경(2012). “개별화 음악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 및 요구조사”. 학습자 중심 교과교육연구 Vol 12. No. 2.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Students in Secondary Schools for Performance Assessment in the Music Subject

Kim, Mi Na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 perception that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have over performance assessment of the music subject by grade was researched and analyzed to identify problems and improvement points, with the purpose to form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music education. To achieve this objective, a study was performed employing the following methods.

Based on literature review related to performance assessments, an understanding was gained over the definition of performance assessment, the types of performance assessment in the subject of music, as well as the direction and characteristics of musical

development among the youths. Then, a questionnaire survey paper was prepared based on such understanding. A total of 425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subjected at 6 schools located at the City of Seongnam to carry out a survey research, and the collected data was statistically processed to analyze the results and identify improvement points.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areas of performance assessment at schools in current music subject, for singing, only first choir is being assessed. For instruments, in middle school, the recorder and danso (Korean traditional wind instrument) are used, while in high school the ocarina, recorder, and harmonica, as well as other free instruments are used for assessment. As for composition, mainly group activities, melody creation, and arranging chord accompaniments are used for the assessments, and for musical appreciation, the assessments are made over song title memorizations and writing out reflections of the music.

Second, as for the overall perception of performance assessment in the music subject, high school students had more positive perceptions than middle school students, with the second year students in middle school having the least favorable perceptions.

Third, among the areas of performance assessments, the younger students (1st and 2nd years in middle school) tended to prefer appreciation while the older students (3rd year in middle school and 1st year in high school) preferred instrumental music. On the other

hand, the younger students found singing difficult while the older students found the creative to be difficult.

Fourth, the greatest problem of performance assessment as viewed by students is the nervousness involved before the performance assessments. Further, the students wanted different levels of individual capacities to be reflected in the assessments.

Based on the results identified from the study, the students perceived that the performance assessment grades depended on individual's innate abilities. The teachers must be aware of this fact, and evaluate not only the outcome but place greater focus on the course of development as well. In order to carry out performance evaluations of the music subject efficiently, musical characteristics by grade should be assessed well which will result in evaluating according to the musical level of the student. To this end, various tools for performance assessments will need to be developed, and the quality of lessons will need to be improved also.

(부록)

중등 학생들의 음악과 수행평가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음악과 수행평가에 대한 인식연구를 위한 설문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나 개인적 신상에 관하여서는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지의 결과는 학업 성적과도 아무 관련이 없으며 틀린 답이나 맞는 답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해주신 질문지는 저의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질문의 내용을 천천히 읽은 뒤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답하면 됩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 미 나

* 다음에 제시되는 질문들 중 해당하는 것을 골라 주세요.

성별: 남() 여()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번호	질문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저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최근에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악 수행평가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2	수행평가는 음악교과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는가?						
3	수행평가는 나의 음악적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가?						
4	수행평가는 음악 공부에 대한 흥미를 증가시키는가?						
5	수행평가는 학교생활의 흥미와 교우관계에 도움을 주는가?						
6	수행평가 실시 후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가?						
7	수행평가로 인해 노래와 악기 실력이 향상되었는가?						
8	수행평가 이후 수업 분위기는 좋아졌는가?						
9	수행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악기나 보충교재를 잘 빌려주는가?						
10	수행평가 준비 시 연습할 공간 또는 음악실을 빌려주는가?						
11	채점 기준이 사전에 공개되는가?						
12	채점 기준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가?						
13	수행평가 과정 시 의문이 생겼을 때 선생님께 말할 수 있는가?						

14	수행평가 시 개인의 노력이 반영되는가?					
----	-----------------------	--	--	--	--	--

15. 가장 재미있고 평가받고 싶은 영역은?

- ① 가창 ② 기악 ③ 창작 ④ 감상

15-1. 그 이유는?

()

16. 평가 시 가장 어렵고 힘든 영역은?

- ① 가창 ② 기악 ③ 창작 ④ 감상

16-1. 그 이유는?

()

17. 기악영역 평가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악기는?

- ① 리코더 ② 단소 ③ 장구 ④ 건반악기(피아노) ⑤ 기타 ()

18. 기악영역 악기 중 가장 배우고 싶은 악기는?

()

19. 가창영역 중 가장 선호하는 평가 방법은?

- ① 독창 ② 합창 ③ 중창 ④ 돌림노래 ⑤ 모듬별 평가

*합창: 여러 성부로 된 곡의 각 성부를 다수가 각기 나누어서 부름, 각 성부를 여러 사람이 부름

*중창: 2~3명이 성부를 나누어 각 성부에 한사람이 부름

*모듬별 평가: 여러 명이 조를 이루어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한성부 혹은 각각 다른 성부를 노래 부르거나 노래외의 다른 음악적인 요소

를 첨가하여 모두의 음악을 조화롭게 하는것

19-1. 그 이유는?

()

20. 창작영역 평가 시 가장 좋아하는 형태는?

- ① 멜로디 만들기 ② 리듬 만들기 ③ 즉흥 연주하기
- ④ 가사 만들기 ⑤ 코드반주 만들기

21. 평가 시 선호하는 방법을 한 가지만 고르시오.

수행평가 방법	
음악 감상이나 음악이론에 대해 글로 설명하게 하는 것	
학급 학생들과의 음악 감상이나 음악이론 등의 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하는 것	
가창, 기악연주를 직접 하게 하는 것	
노래를 학생의 개성에 맞게 만들게 하거나 가창 연습을 새로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오게 하는것	
특정 주제의 토론 결과나 학습 결과에 대해 자신을 돌아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	
음악가나 음악이론에 대해 연구해 오게 하는 것	
학기 중 작성된 음악 작품과 감상문 등을 서류철을 이용하여 모으게 하는 것	

22. 현재 실시되고 있는 평가의 가장 좋은 점은?

- ① 음악의 여러 분야를 경험할 수 있다.
- ② 노래 부르거나 악기 연주 실력이 향상된다.
- ③ 한 번쯤은 새로운 음악을 창작할 수 있다.
- ④ 평가를 함으로서 나의 음악적 기본 교양이 향상된다.
- ⑤ 다른 과목에 비해 점수 받기가 쉽다.

23. 현재 실시되고 있는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 ① 노래나 악기 연주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 ② 수업시간 내내 항상 평가에 신경 써야 함
- ③ 선생님의 선입견과 감정에 의한 평가
- ④ 각종 참고 자료 부족
- ⑤ 기타 ()

24. 평가 시 바라는 점은?

- ① 타고난 재능이 아닌 개인적 차이 고려
- ② 다양한 악기 교육 및 평가
- ③ 가창이나 기악 평가 전 연습시간 제공
- ④ 채점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제시
- ⑤ 기타()